

##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가치 판단의 차이: 용산재개발사건을 중심으로\*

정은경 정혜승 손영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도덕적 기반이론(Haidt & Joseph, 2004)은 도덕에 대한 기존의 정의가 서구중심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으며, 손상과 공평성 뿐 아니라 권위, 내집단, 순수함이라는 가치 또한 도덕적 영역에 포함되어야함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5개 도덕적 기반의 차이에서 진보와 보수가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용산재개발사건을 판단할 때 진보와 보수가 실제로 서로 다른 도덕적 기반을 사용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1에서는 개인 및 집단 인터뷰를 통해 용산재개발사건을 판단할 때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개념 14개를 추출하였다. 연구 2에서는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진보와 보수의 스키마 차이를 살펴보았다. 정치적 이념 성향이 뚜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 1에서 추출된 개념들에 대한 관계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판단 네트워크를 도출하였다. 예상대로, 진보가 보수보다 유의미하게 큰 네트워크를 보였으며 진보의 네트워크에는 손상과 공평성과 관련된 도덕적 개념들이, 보수의 네트워크에는 권위와 관련된 도덕적 개념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적 기반이론이 제시하듯이 진보는 손상과 공평성이라는 개인적 가치를, 보수는 권위라는 결속적 가치를 더 많이 사용하여 판단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함의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진보와 보수, 도덕적 기반이론, 용산재개발사건, 사회연결망분석

사회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들은 대개의 경우 가치와 이념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던 서울시의 무상급식, 존엄사 논쟁, 용산재개발사건, 쌍용차 평택공장 진압 등은 기본적으로 가치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치는 종종 진보와 보수<sup>1)</sup>라는 정치적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진보와 보수는 정치적 이념은 현재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학이나 정치학, 언론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B00853).

† 교신저자: 손영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262 연세대학교 위당관 407호, E-mail: ysohn@yonsei.ac.kr

1) 한국에서 사용되는 진보와 보수라는 용어는 서구에서 사용되는 'Liberals'와 'Conservatives'라는 용어와는 다소 다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한 혼란이 존재한다. 진보와 보수라는 용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정은경, 손영우(2011)를 참조하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진보와 보수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을 뿐 심리학에서의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각종 사회적 현상은 표면적으로는 가치과 이념을 내세울지라도 실제로는 매우 심리적인 현상인 경우가 많다. 이는 의사결정에 대한 심리학 연구가 보여주듯이 사람들은 단순히 이념이나 이성만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치 사회적 판단은 이성 뿐 아니라 감성의 문제(Western, 2007)이기 때문에 사회학이나 정치학 못지않게 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서구에서는 도덕성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일부 학자들이 정치 성향에 대한 심리적 연구를 다시 하기 시작하였으나 국내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현재 정치심리학에 대한 연구가 약간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간된 논문들 중에서 정치, 선거, 투표 등과 관련된 연구도 총 20 여 편에 불과하다(이상신, 2009). 특히 투표행위 및 다양한 사회적 견해에 대한 예측 타당도가 높은 유용한 개념인(Jost, 2006) 진보와 보수의 심리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정치적 현상에 대한 태도 및 갈등에서 일차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류인 진보와 보수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실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진보와 보수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schema) 혹은 멘탈모델(mental model)을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진보와 보수의 심리적, 도덕적 특성

진보주의의 핵심 요소는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Gutmann, 2001). 전통적으로 진보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완벽성에 대해 낙관주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즉 진보는 인간은 가능하면 자유롭게 살 때 가장 인간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권위와 체제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입장 이데올로기’라고도 이해할 수 있으며(Muller, 1997), 이런 견해에 의하면, 보수가 중시하는 가치는 권위에 대한 존중과 체제 유지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는 인간의 본성

에 대해 비관론적인 입장을 취하며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불완전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보수는 사람들이 서로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권위와 제도, 전통이라는 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보와 보수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의 성격과 정치적 성향과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자, 즉 진보는 경험에 더 개방적이고,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McCrae, 1996). 반면, 보수는 익숙하고, 안정적이고, 예상가능한 것들을 더 선호한다(Jost, Nosek, & Gosling, 2008; McCrae, 1996). 특히 Jost, Glaser, Kruglanski 및 Sulloway(2003)는 메타분석을 통해 보수의 두 가지 핵심 특성은 변화에 대한 저항과 불평등에 대한 수용이라고 지적하였다.

심리적 특성 뿐 아니라 도덕적 가치의 측면에서도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도덕적 판단에 대해 가장 잘 알려진 이론은 Kohlberg의 도덕발달 이론이다. 도덕적 추론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Kohlberg는 “도덕적 추론은 일상적인 도덕 언어를 사용하는 의식적인 과정이다”(Kohlberg, Levine, & Hower, 1983)라고 말하면서 도덕적 행동은 기본적으로 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도덕 판단을 거쳐 이루어진다고 제안하였다. Kohlberg는 기존의 정신분석이나 행동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Piaget의 인지 발달 이론을 활용하여 6단계로 구성된 도덕발달 이론을 제시하였고 그의 이론은 현재까지도 도덕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인용되는 이론이 되었다.

Kohlberg가 개인내적 변수의 힘을 강조한 것에 반해 Levine(1979), Rest(1986), Nucci와 Turiel(1978) 등은 개인외적인 상황적 요인을 좀 더 강조한 이론들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Nucci와 Turiel이 제안한 사회적 상호작용 모델에서는 도덕적인 것과 사회적인 규칙위반을 구분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행동의 결과를 먼저 고려한다. 여기서 불공평함, 손상, 타인의 권리의 침해를 낳는 행동은 도덕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이런 행동은 다른 사회적인 규칙 위반과는 다르게 처리된다고 본다. 여기서 Nucci와 Turiel이 말한 불공평함, 손상, 권리의 침해는 지금까지 도덕 영역의 핵심가치로 여겨져왔다.

실제로 도덕(morality)의 정의에 대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Turiel(1983)의 정의이다. 그는 도덕적 영역을 “사람들이 서로 서로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과 관련된 정의(justice), 권리(rights), 안녕(welfare)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라고 정의하여 공정성과 손상 및 침해가 도덕의 핵심 가치임을 제시하였다.

### 도덕적 기반 이론

공정성과 손상이 도덕의 핵심 가치라는 주장에 대해 Haidt와 Joseph(2004)는 도덕성은 비서구사회의 가치도 포함해야함을 지적하면서 도덕적 기반 이론(Moral foundations theory)을 제안하였다. 도덕적 기반 이론은 비서구권 문화에서의 도덕개념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안된 것으로, 도덕적 영역이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도덕적 기반이론은 도덕성에는 기존의 Kohlberg와 Turiel 식의 도덕 가치인 손상(harm/care)과 공정성(fairness/reciprocity) 영역 이외에, 내집단(ingroup/loyalty), 권위(authority/respect), 순수함(purity/sanctity) 영역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Haidt(2008)는 도덕적 기반 이론을 설명하면서 도덕을 도덕 판단의 내용(content)이 아니라 도덕 시스템의 기능(functions)으로 세분화하였다. 그에 의하면, “도덕적 시스템은 가치, 관습, 제도 등이 서로 얽혀있는 것으로, 이 시스템은 이기심을 억제하거나 조절하고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도록 기능한다”(p.70). Haidt는 두 가지의 공통적 도덕 시스템(즉, 이기심을 억제하는 두 가지 방법)을 기술하였는데, 개인적 접근(individualized approach)과 결속적 접근(binding approach)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인적 접근은 도덕적 가치의 초점이 개인에게 있으며 법 제도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개인을 보호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가르쳐서 이기심을 억제하는 것인 반면, 결속적 접근은 초점이 집단에 있고 인간의 불완전성을 다스리기 위해 개인을 역할과 의무로 묶고 집단과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Graham, Haidt 및 Nosek(2009)은 상기한 접근을 바탕으로 5개 도덕적 기반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상기한 저자들은 손상/배려, 공정성/상

호주의라는 두 가지 가치는 개인의 권리와 안녕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개인적 접근에 해당하고 내집단/충성, 권위/존중, 순수성/성스러움이라는 가치들은 집단을 결속시키는 충성심, 의무, 자기통제를 강조하므로 결속적 접근에 해당한다고 분류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연구에서 진보는 보수에 비해 손상/배려, 공정성/상호주의라는 기반에 더 몰두하고 더 많이 사용하지만 보수는 진보에 비해 위의 5가지 기반을 모두 공정하게 몰두하고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서로 다른 도덕적 기반을 사용한다는 상기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도덕적 기반 이론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개념적 구인(construct)의 타당성과 시나리오 중심의 연구였던 것에서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을 판단할 때 진보와 보수가 과연 서로 다른 스키마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제 사회적 문제나 사건 중 5개 도덕적 기반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을 찾기는 어려우므로 기존의 도덕적 영역인 손상과 공정성,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새로운 도덕적 기반인 권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손상, 공정성, 권위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용산재개발사건을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판단을 알아보았다.

용산재개발 사건은 2009년 1월 20일 새벽, 경찰과 철거민 시위자의 충돌로 철거민 5명, 경찰 1명 등 총 6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한 사건이다. 철거민들의 시위는 도시정비를 위해 철거가 결정된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세입자들 중 일부가 정부의 보상금에 동의를 하지 못하면서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2008년 11월부터 서울시는 강제철거를 시작하였고 철거민들의 시위는 과격해지기 시작했다. 2009년 1월 19일 철거민 300여명이 건물을 점거하고 화염병 등 과격시위를 시작하였으며, 20일 새벽 경찰 약 300명이 투입되어 강제진압하였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격렬한 대립을 촉발하였으며, TV 등 각종 매체에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용산재개발사건은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권위가 충돌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분명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였다.

실제로 2009년 1월에 MBC 100분 토론에서는 용산재개발사건에 대한 인터넷 설문결과를 실시하였다. 용산재개발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48%(19,222명)는 ‘경찰의 과잉진압’이라고 답하였으며, 45%(18,049명)는 ‘불법 과격시위’라고 답하여 진보와 보수간의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용산재개발사건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데 관여되는 도덕적 기반 요소들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스키마 추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사회연결망분석을 사용하여 용산재개발사건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사회연결망분석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이하 SNA)은 “구조나 연결망 형태의 특징을 도출하고, 관계성의 체계 특성을 설명하거나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김용학, 2007)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 사회연결망분석은 네트워크 결점(node)의 주체를 인간으로, 그리고 그 관계성은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제되었으나 이후에는 이러한 개념이 조직에까지 확장되었으며(Burt, 1982; Mizruchi, 1992), 최근에는 네트워크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SNA는 정치학, 사회학, 물리학, 생물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김용학, 2007). SNA는 인간의 지식에 대한 구조적 표상을 만들어내기에도 적합한 기법으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이나 다차원척도(multidimensional scaling, MDS), Pathfinder 알고리즘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황신웅, 2005; Cook, Durso, & Schvaneveldt, 1986).

연결망 분석을 위한 접근 방식은 크게 ‘위치적 접근(positional approach)’과 ‘관계적 접근(relational approach)’ 두 가지가 존재한다(이미영, 2003). 위치적 접근은 사회연결망에서의 각 결점의 위치와 그 효과를 측정하려는 것으로 연결망 전체 구조 내에서 행위자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밝히는 것이다. 여기서는 구조적 등위 여부를 분석하는 것으로 각 결점들이 서로 직접 연결되었는지는 관심이 아니며 어떤 구조적 위치에 존

재하는지가 관심이다. 반면, 관계적 접근은 각 결점들 간의 관계 유무, 즉 직접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결속 접근’이라고도 불리어진다. 결점들 사이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면, 이들은 한 집단(결속)으로 묶여질 수 있으며 이들 간의 물리적 거리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판단하는데 어떤 개념들이 사용되고 각 개념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관계적 접근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산재개발사건을 판단하는데 진보와 보수가 어떤 도덕적 항목(node)을 사용하는지 알아보고(연구 1), 이러한 도덕적 항목들을 SNA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로 표현하고 진보와 보수의 네트워크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연구 2)

### 연구 1

연구 1은 사람들이 용산재개발사건에 대해 어떤 도덕적 개념을 사용하여 판단하는지, 즉 도덕적 판단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추출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용산재개발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인터뷰를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방법

#### 참가자 및 연구 절차

일반 성인 9명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실시되었으며, 3-4명으로 구성된 초점화된 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가 실시되었다. 또한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종사자 각 1명씩, 총 2명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가 실시되었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집단의 연령 범위는 20-25세였으며, 평균연령은 22.7세, 남자 3명, 여자 5명이었다. 일반 성인 및 이념단체 종사자의 연령 범위는 31-49세였으며, 평균연령은 40.7세, 남자 4명, 여자 5명이었다.

인터뷰는 30분-60분가량 진행되었다. 인터뷰 전반부에서는 용산재개발사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

도록 하였고, 이후 미리 준비된 질문을 묻는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5개 도덕적 기반 중 용산재개발사건과 관련된 영역인 손상, 공정성, 권위를 중심으로 분류되었다. 분류기준은 Graham, Haidt, 및 Nosek(2009)이 제시한 도덕적 기반 영역을 반영하는 단어들을 기준으로 하였다.

단어 분류는 심리학 석사졸업 이상의 심리학자 3명이 실시하였으며 이들 간에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된 단어는 최종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남은 단어들 중 중복되는 단어나 의미가 혼란스러운 것들을 다시 제외하였다. 아울러 개발자본과 좌파는 도덕적 기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분단이라는 한국의 독특한 상황이 반영된 개념으로,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최종목록에 포함되었다.

**결과 및 논의**

단어분류 과정을 통해 주제어인 용산재개발사건을 포함하여 최종 14개의 단어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최종 단어 목록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최종 목록은 손상, 안전, 보호, 야만(손상영역), 정의, 불평등, 권리(공정성 영역), 불법적, 통제, 질서, 순응(권위 영역), 개발자본, 좌파(기타), 용산재개발사건(주제어) 등으로 구성되었다. 개발자본과 좌파는 기존의 도덕적 기반 이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가 좌파와 우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등의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를 정의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표 1. 용산재개발사건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사용되는 단어들의 최종 목록

도덕적 기반(범주)	단어	관련 언급
	용산재개발사건	주제어
손상	손상	“꼭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해야 했는지.”
	안전	“그 사람들도 시민인데, 시민의 안전을 그렇게 무시하는 진압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보호	“도대체 정부는 개인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야만	“경찰이 겨울에, 그것도 새벽에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진압한 건 정말 야만적인 행동이에요.”
공정성	정의	“우리 사회가 정말 정의사회라면 용산재개발참사를 불러온 책임자를 처벌해야 해요.”
	불평등	“우리 사회는 불평등하고 이런 게 재개발 같은 사건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고 봐요.”
	권리	“용산에서 일을 하고 있던 상인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줘야 합니다.”
권위	불법적	“불법적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지는 건 다 불법이에요.”
	통제	“법을 지키려면 개인의 자유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질서	“정부가 하는 일이 뭐니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순응	“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뭔가 불공평한 것도 어느 정도는 참고 따라야한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타	개발자본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발자본의 문제라고 봐야죠.”
	좌파	“이 사건은 좌파가 선동한 측면이 있다고 보죠.”

표 2. 연구 2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정치성향	연령	성별		교육수준			
		남	여	중등졸	고등졸	대졸	대학원
진보	36.75세(10.24)	30%	70%	5%	10%	65%	20%
보수	39.27세(11.47)	80%	20%	10%	13%	67%	20%

\* 연령의 해당 값은 평균, ()은 표준편차

## 연구 2

연구 2는 연구 1에서 추출된 도덕적 기반 요소들을 진보와 보수가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사회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보는 주로 손상과 공평성 영역에 해당되는 개념들을, 보수는 주로 권위에 해당되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용산재개발사건을 표상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방법

### 참가자

본 연구의 목적은 진보와 보수의 전형적인 도덕적 판단에 대한 스키마를 추출하는 것이므로 중도적인 입장을 지닌 사람들보다는 진보와 보수 성향을 분명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1에 참여한 참가자는 제외되었다. 20-50대 연령의 성인 41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중 78%에 해당하는 31명은 실제로 진보 혹은 보수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수집된 자료들 중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묻는 질문(9점 척도, 양방향에 각 4점, 중도는 0점에 표시하도록 함)에 중도라고 대답하거나 보수단체에 종사하면서 진보라고 대답하는 등 응답이 신뢰롭지 않은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는 35명이었으며 진보가 20명, 보수가 15명이었다.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 연구도구 및 절차

최종적인 도덕적 판단 네트워크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가 작성되었다. SNA 분석을 위해 연구 1에서 추출된 14개 요소들은 서로 모두 짝을 지워서 제시되었으며(14×13=182문항), 각 문항은 한 요소가 짝이 되는 다른 요소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1점에서 7점 사이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두 요소간 관계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0점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모든 문항을 마친 참가자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묻는 질문을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응답하였다.

### 분석 방법

14개 요소 각각에 대해 나머지 13개 요소와의 관계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므로 참가자 한 명의 자료는 상관표와 유사하지만 비대칭적인 일종의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매트릭스는 각 사람에 대해 만들어졌으며, 이후 진보와 보수에 속하는 사람들의 값들을 평균하여 최종적으로 진보와 보수 각각에 대해 하나의 매트릭스가 산출되었다(이선아, 2009; 황신웅, 2005). 사회연결망분석 소프트웨어들은 0이상의 값을 가진 요소에 대해서는 모두 연결선으로 표시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네트워크를 보다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해 평균값이 4점 이상인 관계들만 자료에 반영하였다(이선아, 2009; 황신웅, 2005). 최종적으로 도출된 진보와 보수 집단의 매트릭스가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가치 판단의 차이: 용산재개발사건을 중심으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용산재개...	보호	정의	질서	개발자본	안전	불평등	순응	좌파	아만	권리	불법적	손상	통제
용산재개...	0.0	1.0	1.0	0.0	1.0	1.0	1.0	0.0	1.0	1.0	1.0	1.0	1.0	1.0
보호	1.0	0.0	1.0	0.0	0.0	1.0	1.0	0.0	1.0	0.0	1.0	0.0	1.0	0.0
정의	1.0	1.0	0.0	0.0	0.0	0.0	1.0	0.0	1.0	0.0	1.0	0.0	0.0	0.0
질서	0.0	1.0	0.0	0.0	0.0	1.0	0.0	1.0	0.0	0.0	0.0	0.0	0.0	1.0
개발자본	1.0	0.0	0.0	0.0	0.0	0.0	1.0	1.0	0.0	1.0	0.0	1.0	1.0	1.0
안전	1.0	1.0	1.0	1.0	0.0	0.0	1.0	0.0	0.0	1.0	1.0	0.0	1.0	0.0
불평등	1.0	1.0	1.0	1.0	1.0	1.0	0.0	1.0	1.0	1.0	1.0	1.0	1.0	1.0
순응	0.0	0.0	0.0	1.0	1.0	1.0	1.0	0.0	0.0	1.0	0.0	0.0	0.0	1.0
좌파	0.0	0.0	1.0	0.0	0.0	0.0	1.0	0.0	0.0	0.0	1.0	0.0	0.0	0.0
아만	1.0	1.0	1.0	0.0	1.0	1.0	1.0	1.0	0.0	0.0	0.0	0.0	1.0	1.0
권리	1.0	1.0	1.0	0.0	0.0	1.0	1.0	0.0	1.0	0.0	0.0	0.0	1.0	1.0
불법적	1.0	0.0	0.0	1.0	1.0	0.0	1.0	0.0	0.0	1.0	0.0	0.0	1.0	1.0
손상	1.0	1.0	0.0	0.0	1.0	1.0	1.0	0.0	0.0	1.0	0.0	1.0	0.0	1.0
통제	1.0	1.0	0.0	1.0	1.0	1.0	1.0	1.0	0.0	1.0	0.0	0.0	0.0	0.0

그림 1. 진보집단의 비대칭적 매트릭스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용산재개...	보호	정의	질서	개발자본	안전	불평등	순응	좌파	아만	권리	불법적	손상	통제
용산재개...	0.0	0.0	0.0	0.0	0.0	0.0	0.0	0.0	1.0	0.0	0.0	0.0	0.0	0.0
보호	0.0	0.0	1.0	1.0	0.0	1.0	0.0	0.0	0.0	0.0	1.0	0.0	0.0	1.0
정의	0.0	0.0	0.0	1.0	0.0	1.0	0.0	0.0	0.0	0.0	1.0	0.0	0.0	0.0
질서	1.0	1.0	1.0	0.0	0.0	1.0	0.0	1.0	0.0	0.0	1.0	0.0	0.0	1.0
개발자본	1.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안전	0.0	1.0	1.0	1.0	0.0	0.0	0.0	1.0	0.0	0.0	1.0	0.0	0.0	1.0
불평등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순응	0.0	0.0	0.0	1.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좌파	1.0	0.0	0.0	0.0	0.0	0.0	1.0	0.0	0.0	1.0	0.0	1.0	0.0	0.0
아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	1.0	0.0
권리	0.0	1.0	1.0	1.0	0.0	1.0	0.0	0.0	0.0	0.0	0.0	0.0	0.0	0.0
불법적	1.0	0.0	0.0	0.0	0.0	0.0	1.0	0.0	1.0	1.0	0.0	0.0	1.0	0.0
손상	1.0	0.0	0.0	0.0	0.0	0.0	0.0	0.0	1.0	1.0	0.0	1.0	0.0	0.0
통제	1.0	1.0	0.0	1.0	0.0	1.0	0.0	1.0	0.0	0.0	0.0	0.0	0.0	0.0

그림 2. 보수집단의 비대칭적 매트릭스

표 3. 본 연구에서 사용된 SNA 분석 지표

지표	내용
전체네트워크	연결정도: 한 항목(node)이 맺고 있는 다른 항목의 숫자. 즉 네트워크 크기에 대한 지표
중앙성(연결중앙성)	전체 연결(link) 수에서 각 항목의 연결 수에 대한 비율. 즉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및 결속력에 대한 지표
소속집단	결속집단(Clique): 완전히 연결된 최대 하위 집단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SNA는 다양한 분석 개념과 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 네트워크의 비교가 목적이므로 전체 네트워크 연결정도, 중앙성, 소속 집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지표에 대한 설명은 표 3에 제시하였다.

결과 및 논의

전체 네트워크

용산재개발사건에 대해 진보와 보수가 지니고 있는 멘탈모델, 즉 전체적 네트워크는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네트워크의 크기, 즉 네트워크의 각 항목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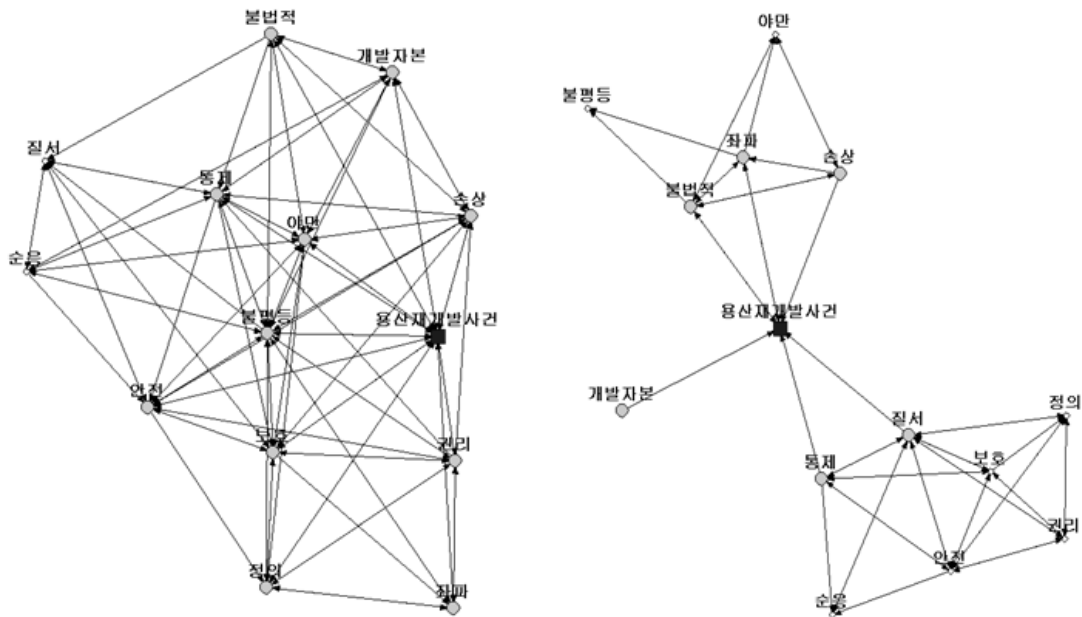


그림 3. 용산재개발사건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네트워크  
(왼쪽: 진보, 오른쪽: 보수, 회색의 큰 원이 용산재개발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개념임)

이 연결되어 있는 다른 항목들의 개수를 살펴보면, 진보의 네트워크가 보수의 네트워크보다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t(26)=7.82, p < .001$ ,

용산재개발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소는 진보는 총 11개, 보수는 총 6개였는데, 각 네트워크에서 도덕적 기반의 개념들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보와 보수 네트워크의 구성개념들에 대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발자본과 죄책은 진보와 보수 모두의 네트워크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두 개념은 한국의 독특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도덕적 기반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념 수가 작고, 본 연구의 목적 또한 기존의 도덕적 개념인 손상 및 공정성과 새로 추가된 개념인 권위 간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알아보는데 있으므로 손상과 공정성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권위와 비교하였다.

진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 손상에 속한 개념(아만, 보호, 손상, 안진)은 77.8%였으며, 권위에 속한 개념(불법적, 통제)이 22.2%였다. 반면, 보수의 네

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 손상에 속한 개념(손상)은 25%였으며 권위에 속한 개념(불법적, 통제, 질서)은 75%였다. 진보와 보수의 네트워크에서 각 도덕적 기반 범주내 요소 개수간의 차이에 대한 카이검증 결과, 요소의 개수가 적어 유의미한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나 진보와 보수가 서로 다른 도덕적 범주를 사용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chi^2(1)=3.26, p < .10$ . 즉 진보는 네트워크에 손상 및 공정성과 관련된 요소들을 보수에 비해 더 많이 포함하고 있었으며, 반대로 보수는 권위와 관련된 요소를 더 많이 포함하는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 지역중양성(연결중양성)

연결중양성은 그 값이 높을수록 해당 요소가 다른 많은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당 개념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제어, 즉 용산재개발사건이 가장 중앙에 위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체 네트워크의 크기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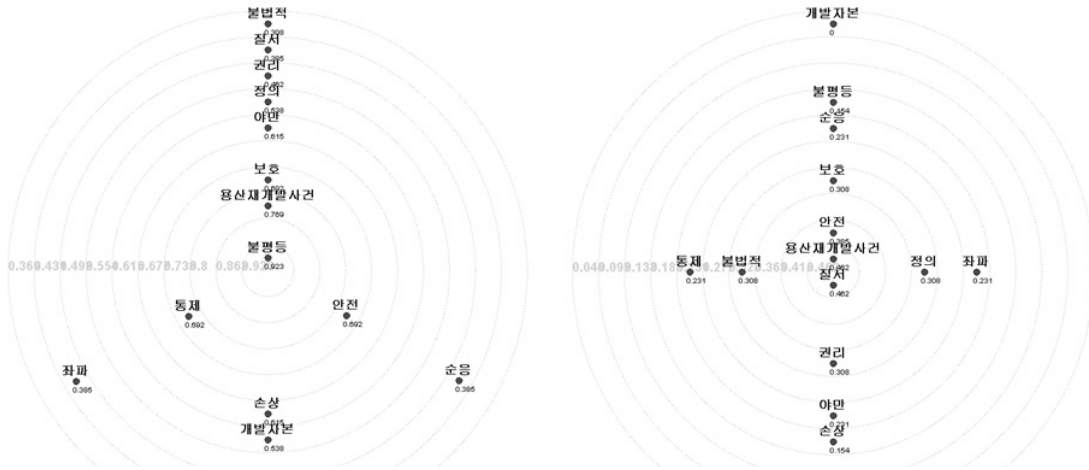


그림 4. 진보와 보수의 연결중앙성(왼쪽: 진보, 오른쪽: 보수)

표 4. 진보와 보수의 결속집단 분석

진 보	응집성지수	결속집단	보 수	응집성지수
불평등, 용산, 보호, 좌파, 정의, 권리	2.00	K1	좌파, 불법적, 손상, 야만	8.00
불평등, 용산, 개발자본, 야만, 불법적, 손상, 통제	1.88	K2	질서, 안전, 보호, 정의, 권리	7.50
불평등, 질서, 통제, 안전, 순응	1.73	K3	불평등, 좌파, 불법적	5.50
불평등, 순응, 야만, 통제, 개발자본	1.66	K4	좌파, 불법적, 손상, 용산	5.00
불평등, 용산, 보호, 안전, 권리, 정의	1.65	K5	질서, 안전, 순응, 통제	4.44
불평등, 용산, 보호, 안전, 권리, 손상, 통제	1.63	K6	질서, 안전, 보호, 통제	3.63
불평등, 질서, 통제, 불법적	1.60	K7	질서, 용산, 통제	2.57
불평등, 용산, 보호, 안전, 야만, 정의	1.54	K8		
불평등, 용산, 보호, 안전, 야만, 손상, 통제	1.53	K9		
불평등, 순응, 야만, 통제, 안전	1.50	K10		

중앙성도 진보가 보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t(26)=7.34, p < .001$ , 진보가 보수보다 각 요소들 간의 연결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를 살펴보면, 진보는 용산재개발사건과 관련된 네트워크에서 공평성영역에 해당하는 불평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보수는 권위에 해당하는 질서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보는 불법적, 순응, 질서와 같

은 권위에 속한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들로 본 반면, 보수는 손상, 불평등과 같은 손상 및 공평성 영역에 속한 요소들을 가장 중요하지 않은 요소들로 인식하고 있었다.

#### 소속집단 분석

소속집단은 해당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대

표적인 결속집단(Clique)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속집단 분석은 소속집단 분석 중 가장 엄격한 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성개념들이 양방향으로 직접적으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집단을 말한다. 표 4에서 용산 재개발사건을 포함한 결속집단을 살펴보면, 진보의 경우 불평등이 일관되게 용산재개발사건과 묶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통제를 제외하고는 손상 및 공평성 영역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용산재개발사건과 함께 하위 집단으로 묶이고 있다. 반면 보수의 경우, 용산재개발 사건을 포함한 결속집단은 두 개로 좌파와 손상을 제외하고는 질서, 통제, 불법적과 같은 권위에 해당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타난 흥미로운 결과는 '좌파'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차이이다. 표 4를 보면, 좌파는 진보의 네트워크에서는 불평등, 정의, 권리, 보호와 같은 긍정적인 개념과 묶여있는 반면, 보수의 네트워크에서는 불평등, 불법적, 손상, 야만과 같은 다소 부정적인 개념들과 묶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좌파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 종합논의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사회적 사건들, 특히 보수와 진보가 충돌하는 사건들은 도덕적 기반이론의 5가지 영역 중 손상 및 공평성이라는 가치가 권위라는 가치와 충돌하여 발생한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개인적 가치(손상 및 공평성)와 집단의 유지를 위한 결속적 가치(권위)가 부딪힐 때 어떤 것을 더 중시하느냐, 또는 어떤 것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느냐가 많은 경우 진보와 보수의 의견 차이의 근원적 차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판단 기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권위가 충돌한 용산재개발사건에 대한 진보와 보수가 어떤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예상대로, 진보는 보수에 비해 용산재개발사건에 대해 더 큰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었으며 손상 및 공평성 영역에 집중하여 사건을 판단하였다. 반면 보수는 권위 영역에 집중하여 용산재개발사건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도덕적 기반이론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진보와 보수는 특정 사안에 대해 중시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과 입장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Kohlberg나 Turiel식의 개인적 '도덕' 정의 이외에 권위라는 영역 또한 사람들이 하나의 도덕적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권위라는 가치로 많은 도덕적, 윤리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권위라는 것이 기존 서구적 '도덕' 정의를 넘어서 현실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도덕적 가치임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보와 보수의 심리적 차이를 연구한 결과들에 의하면, 보수는 시스템 불안정성, 모호함에 대한 낮은 인내력, 질서에 대한 욕구, 위협에 대한 두려움 등과 같은 불확실성과 위협을 줄이려는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Jost, et al., 2003)고 보고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심리적 특성에 대처하기 위해 사람들이 보수주의적 입장을 취한다는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Jost et al., 2003; Pratto, Sidanius, Stallworth, & Malle, 1994), 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심리적 요인 때문에 보수주의적 입장을 취한다는 인과론적 해석은 아직까지는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 본 연구 결과도 보수는 Jost(2006)가 말한 '변화에 대한 저항과 불평등에 대한 인내'라는 진보적 도덕적 기반에 비춰서 기술되기보다는 권위라는, 진보와 다른 도덕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진보가 보수에 비해 용산재개발 사건에 대해 더 큰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고 각 개념간 연결성도 강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진보가 민감한 가치와 보수가 민감한 가치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진보가 중시하는 공평성이나 손상이 핵심적인 문제였던 용산사건에 대해서 진보가 더 크고 강한 네트워크를 지녔다는 것은 용산 사건에 대해 보수보다 진보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반면, 정은경, 손영우(2011)의 연구에서 보수가 중시하는 가치인 내집단과 순수함이 핵심가치인 간통에 대해서는 보수가 진보보다 더 크고 강한 네트워크를 지닌 것으로 나타나, 진보와 보수는 자신들이 중시하는 가

치에 따라 특정 사건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민감성(sensitivity)의 문제는 기존에 보수가 진보에 비해 역겨움에 대한 민감성(disgust sensitivity)이 높다는 연구(Inbar, Pizsrro, & Bloom, 2009) 결과 해석에 주의를 필요함을 시사한다. 상기 연구자들은 두 개의 연구를 통해 보수가 진보보다 역겨움에 대한 민감성이 높다고 하였으나 이들이 사용한 문항이나 시나리오는 거의 순수함(purity)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러나 순수함은 도덕적 기반이론에 의하면 진보보다 보수가 더 중시하는 영역이다. 본 연구 결과는 보수보다 진보가 더 중시하는 영역에서는 오히려 진보가 더 높은 민감성을 보일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역겨움을 비롯한 정서적 반응에 있어서의 진보와 보수의 차이 또한 각각이 중시하는 영역에 대한 민감성(예를 들면,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손상에 대한 민감성 등)을 모두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도덕적 기반 이론의 가치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용산재개발사건에서 개발자본과 좌파는 각각 진보와 보수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한국 상황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네트워크 분석의 화살표를 살펴보면, 보수는 좌파가 용산재개발사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물론 영향을 받기도 함, 즉 양방향 관계) 판단하고 있었으나 진보는 좌파가 용산재개발사건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영향을 받기만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용산재개발사건의 원인에 대한 인식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속집단 분석에서도 진보는 좌파를 좀 더 긍정적인 개념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보수는 부정적인 개념과 연관된 것으로 보는 것에서도 나타나 본 연구는 좌파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인식 차이가 실제로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각각에 내재된 도덕적 기반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실제 사건에 대한 도덕적 스키마 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용산재개발사건에 대한 진보의 네트워크가 더 크고 강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도덕적 기반 비교에서는 경향성만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네트워크에 포함된 개념 자체가 주제어와 개발자본, 좌파를 제외하면 11개로 너무 적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개념을 포함한 네트워크 분석으로 본 연구결과를 다시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 대부분이 이념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적 정치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스키마와 정치적 이념 성향이 그리 극단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스키마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용학 (2007). 사회연결망 분석. 박영사.
- 이미영 (2003). 인터넷 쇼핑 시장의 구조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상신 (2009). 정치심리학의 연구 현황과 전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4-51.
- 이선아 (2009). 감성적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한 스토리텔링: 스키마 부합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은경, 손영우 (2011).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가치 판단의 차이: 간통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727-741.
- 황신웅 (2005). 모바일 기기 구매 의사결정에 관한 멘탈 모델의 추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Burt, R. S.(1982). *Toward a Structural Theory of Action: Network Models of Social Structure Action*. Academy Press.
- Cooke, N. M., Durso, F. T., & Schvaneveldt, R. W. (1986). Recall and measures of memory organiz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2, 538-549.
- Graham, J., Haidt, J., & Nosek, B. A. (2009). Liberals and Conservatives Rely on Different Sets of Moral Found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5),

- 1029-1046.
- Gutmann, A. (2001). Liberalism. In Smelser N.J., and Baltes P.B.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Elsevier.
- Haidt, J. (2008). Moralit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 65-72.
- Inbar, Y., Pizarro, D. A., & Bloom, P. (2009). Conservatives are more easily disgusted than liberals. *Cognition and Emotion*, 23, 714-725.
- Jost, J. T. (2006). The end of the end of ideology. *American Psychologist*, 61, 651-670.
- Jost, J. T., Glaser, J., Kruglanski, A. W., & Sulloway, F. J. (2003). Political conservatism as motivated social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9, 339-375.
- Jost, J. T., Nosek, B. A., & Gosling, S. D. (2008). Ideology: Its resurgence in social, personality, and political psycholog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 126-136.
- Kohlberg, L., Levine, C., & Hewer, A. (1983). *Moral stages: A current formulation and a response to critics*. Basel: Karger.
- Levine, C. G. (1979). Stage acquisition and stage use: An appraisal of stage displacement explanations of variation in moral reasoning. *Human Development*, 22, 117-132.
- McCrae, R. R. (1996). Social Consequences of Experiential Openness. *Psychological Bulletin*, 122, 323-337.
- Mizuchi, M. S.(1992). *The Structure of Corporate Political Ac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Muller, J. Z. (1997). What is conservative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In J. Z. Muller (Ed), *Conservatism: An anthology of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from David Hume to the pres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ucci, L.P., & Turiel, E. (1978). Social Interactions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ncepts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9, 400-407.
- Pratto, F., Sidanius, J., Stallworth, L. M., & Malle, B. F. (1994).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741-763.
- Rest, J.R. (1986).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Praeger Press.
-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stern, D. (2007). *The political brain: The role of emotion in deciding the fate of the nation*. New York: Public Affairs.

## Do Liberals and Conservatives Use Different Moral Foundations: Their Schemas for Yong-san Tragedy

Eunkyong Chung Haesung Jung Youngwoo Sohn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Moral foundations theory(Haidt & Joseph, 2004) suggests that morality include authority/respect, ingroup/loyalty, purity/sanctity as well as harm/care and fairness/reciprocity and explains that there are disparities between liberals and conservatives among those moral found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imed to explore that liberals and conservatives make decisions with different moral foundations on controversial social event, Yong-san tragedy. After conducting individual and group interviews, study 1 identified 14 concepts related with Yong-san tragedy(justice, unequal, harm, protect, safety, rights, brutal, obedience, order, illegal, control, development capital, left-wing, Yong-san tragedy). In Study 2, social network analysis reveals liberals possess larger and more complicated schema than conservatives. Moreover, whereas liberals' schema included more concepts belonging to individualizing foundations(harm and fairness) than conservatives' schema, conservatives' schema included more concepts belonging to binding foundation(authority).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words:* liberals and conservatives, moral foundations theory, Yong-san tragedy, social network analysis

1차원고 접수일 : 2011년 09월 30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1년 11월 29일  
게재 확정일 : 2011년 11월 30일